

1년간의 교환 유학 생활을 돌아보며

한국예술종합학교
전현민

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이론과, 전현민이라고 합니다. 원래 예정되어있던 교환 유학 기간은 한학기였으나, 후기까지 연장하게 되어 장장 1년간 오차노미즈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. 4월부터 시작된 여정이 이제 막을 내린다고 하니 아쉽고 섭섭한 마음이 더 큼니다.

전기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선 환경이었기 때문에 여러가지를 체험하며 적응해 나가는 것에 비중을 두었다면, 후기에는 적응된 환경에서 ‘진짜’ 가치 있는 경험을 해보려 노력했던 한학기였습니다.

가장 기억의 남는 것 중 하나는 지도교수인 나카무라 교수님의 [무용에서의 색, 소리, 향] 수업에 동작 시연으로 참여한 것입니다. 이 수업은 매번 다른 장르의 무용 교수님들이 오셔서 강연 식으로 진행되는 수업이었는데, 그 중 한국 무용 교수님의 강연에 워크숍 동작 시연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. 많은 학우들 앞에서 긴장되고 떨리기도 하였지만 일본에서 한국의 춤을 소개하고 함께 즐길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.

또 기억에 남는 것은 전기부터 늘 듣고 싶었던 일본 무용 정규 수업을 듣게 된 것입니다. 일본 무용의 다양한 레퍼토리들을 배우며 일본 전통 예술의 미학, 예로부터 전해지는 생각 방식 등 현지에서만 느낄 수 있는 문화적 측면을 엿볼 수 있어 즐겁고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. 연습 시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몸이나 동작을 확인하는 타 장르의 무용과는 다르게 일본 무용은 거울을 등진 채 감각에 집중하여 역할을 표현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.

하기와라 교수님의 [일본어 연습 1B]에서는 ALH로 지도교수님을 인터뷰하며 경어 연습을 하고, 카토우 선생님의 [일본어 연습 2B]에서는 가루 문화에 대해 발표를 하며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친구들과 공유하는 등 유학생 일본어 수업에서는 여러가지 활동들을 통해 즐겁게 일본어 실력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.





수업 이외에도 동아리에 들어가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고 축제와 대회를 준비하며 '청춘'을 몸소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경험도 하였습니다. 책을 보며 공부하는 것뿐 아니라, 직접 겪어 보며 부딪혀 견문을 넓히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 수 있는 1년이었습니다.

마지막으로 1년 간의 교환 유학을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

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. 먼저, 지도교수인 나카무라 교수님, 매달 되돌아보기 시트를 읽어주시고,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. 1년간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. 다음으로, 일본 무용 특별 수업부터 정규 수업까지 늘 신경 써주신 쿠로즈미 교수님께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. 덕분에 춤추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. 또, 유학생 홈룸 수업부터 일본어 1B 수업까지 언제나 열정적으로 지도해 주신 하기와라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. 제 일본어 실력 향상의 8할은 하기와라 교수님 덕분입니다. 마지막으로, 부족한 저를 잘 이끌어 주신 카토우 교수님, 가르마에바 교수님, 데렉 교수님, 오우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.